

2023

07.10

CERIK 시장동향

2023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시장	2
○ 임대차시장	5
○ 공급	6
○ 수요	9
○ 금융	10
○ 부동산산업	11
○ 통계요약표	12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6월 아파트 가격 낙폭 연중 최저... 수도권 아파트 가격 0.11% 하락했고 지방도 0.17%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대 소폭 상승해 하락세로 접어들지 1년 6개월 만에 반등 기록
- 서울 전체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중 29.4%로 집계돼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 **(종합)** 시장분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움직여 혼란스러운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통계 생산 기관 간에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시황 해석에 어려움 겪어
- ◎ **(매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의 하락폭은 개선 추세이나 좀처럼 상승세로 반전하지는 못해
 - 특히 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조사 결과 여전히 0.11% 하락 기록
 -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집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관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상황
 - 전국 실거래 신고가를 합산한 결과 5월 한 달 동안의 매매거래총액은 약 15.5조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에 비해 2.1배 이상 증가한 액수임.
- ◎ **(거래)** 4월 들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감소했던 거래량은 5월 들어 다시금 회복세 나타내
 - 4월까지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5월 들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가계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일으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 가능
 - 서울의 5월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29.4%로 집계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1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분석
- ◎ **(임대차)**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대 소폭 상승 기록
 - 월세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은 0.13% 하락했지만, 서울 동남권 및 광명, 성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뚜렷해
- ◎ **(공급)** 미분양 감소세 지속돼 올해 1월 이후 최소 물량인 6.9만 호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근 평균치 상회
 - 인허가의 경우 지난달에는 지방 5개 광역시의 전년 대비 연간 누적 인허가 감소폭이 적은편이었으나 5월 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누적 인허가 감소폭도 2배로 확대
- ◎ **(심리)** 시장의 가격 기대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 CSI, 13개월 만에 100 기록해 상승과 하락 전망 균형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1% 하락했으며 이는 2022년 6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적은 낙폭
- 2023년 초부터 보유세 완화 기조의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연중 최다치 경신(2만 4,739호)

◎ (가격)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2022년 6월(0.17% 하락) 이후 가장 낙폭 적은 0.11% 하락 기록

- 2분기 들어 서울·인천·경기 각각의 가격 변화율이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남. 하락폭 둔화가 지역 별로 차이가 났던 올해 1분기의 상황과는 상이한데, 지역 간 분위기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견해와는 상반돼 향후 시장 흐름을 주목할 필요 있어

* 수도권 전체 0.11%↓ / 서울 0.11%↓ / 인천 0.13%↓ / 경기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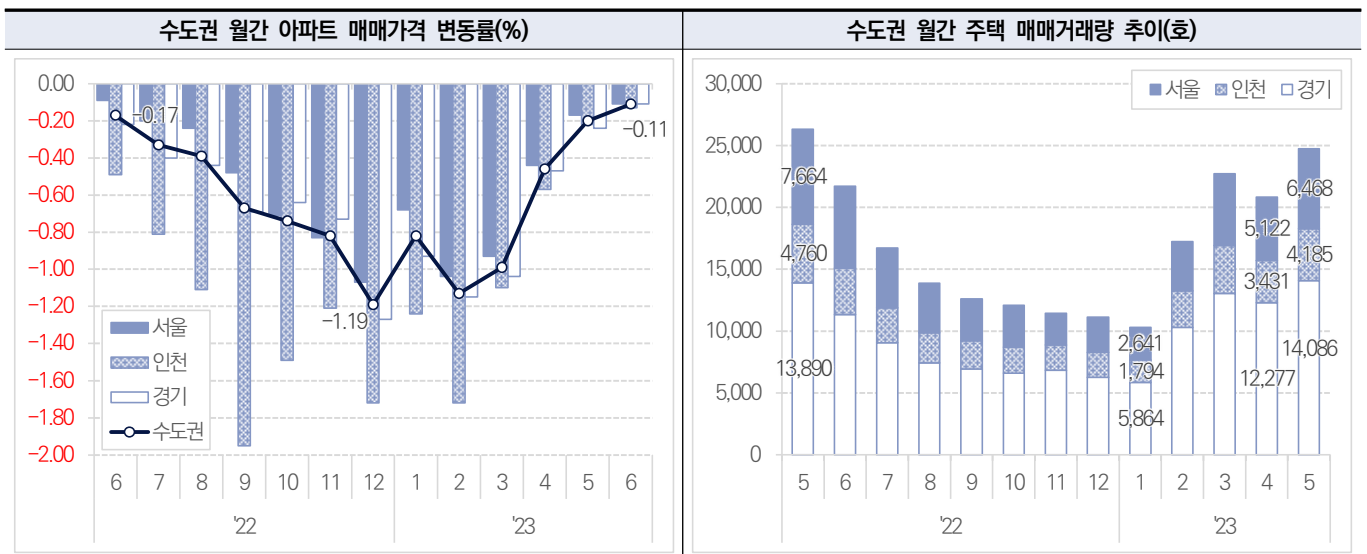
- 여타 기관의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표를 살펴보면 하락의 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상승세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보면 여전히 하락세라는 의견이 우위에 있음.

* 한국부동산원 0.10%(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KB국민은행 -0.36%(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 본 고는 부동산114 조사 기준

◎ (거래) 5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3년 연중 최다인 2만 4,739호를 기록

- 그 중 서울의 거래량 비중은 26.1%(6,468호)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보유세가 강화됐던 시기에 5월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보유세 기산일(6월 1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23년 들어 보유세 부담에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최다치를 기록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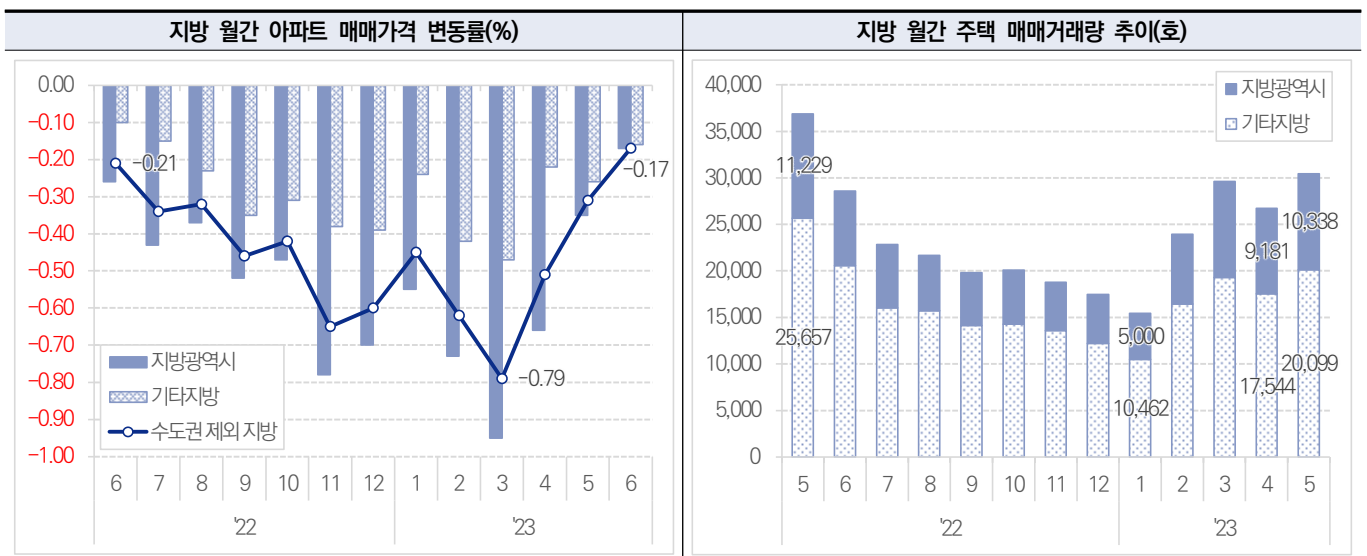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 8개 도)

- 지방에서도 1년 만에 가장 적은 낙폭인 0.17% 기록해 지방과 수도권 낙폭 감소 양상 비슷
- 4월 매매거래는 3월보다 감소했지만, 5월 들어 MoM 13.9% 증가하면서 2023년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 나타내

- ◎ (가격) 지방 아파트 가격 역시 수도권과 회복 양상 비슷해... 지난해 6월(0.21% 하락) 이후 가장 낙폭 적어
 - 올해 들어 지방광역시 -0.95% (^{3월}) → -0.17% (^{6월}) / 8개 도 -0.47% (^{3월}) → -0.16% (^{5월})로 낙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6월 가격 하락폭이 0.17%로 줄어든 데는 지방광역시 시장 안정의 역할이 큼.
 - 가격 하락폭 감소의 원인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특정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 평균 하락폭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시장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월간 1% 이상 하락했던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일부 지역의 낙폭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 ◎ (거래) 5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수도권과 유사한 흐름 보이며 2023년 들어 최다인 3만 437호 기록
 - 지난달에 비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전북(37.5%)으로 나타났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은 전월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지역은 제주인데(1.8% 감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7%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고 5월까지 누적거래량으로 비교하면 전년 대비 41.6% 감소
 - 실거래가 신고된 거래액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1월 대비 2.1배 이상 증가한 15.5조 기록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매매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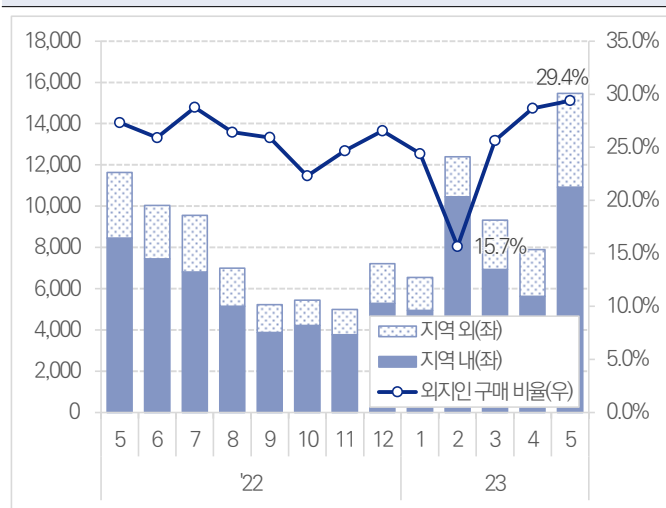
3_거래속성

- 서울지역 5월 매매거래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은 지난 2006년 1월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29.4%
- 보유기간 3년 미만 거래 27.1%... 7개월래 최저 비율이며 그중 1년 이하 비중은 4.7%로 전년 5월 비중(12.0%) 대비 2/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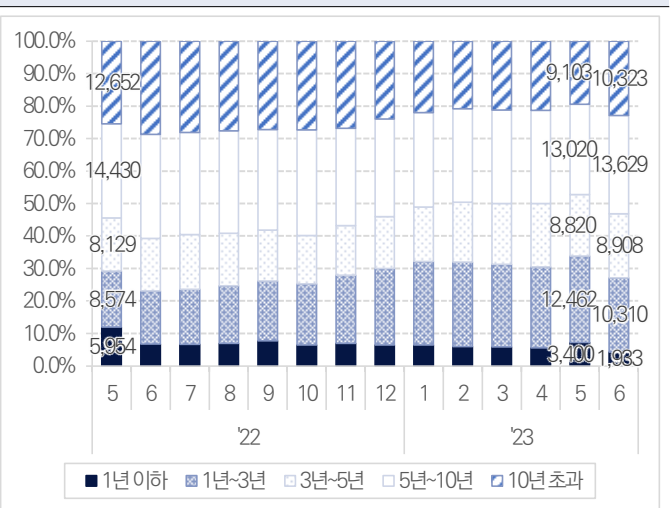
- ◎ **(거래유형)** 서울 5월 매매 중 외지인¹⁾ 거래 비중은 연중 최저 比 2배 가까이 확대(15.7%^(2月) → 29.4%^(6月))
 - 서울 일부 지역에서 4월부터 두드러졌던 가격 반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외지인 구매 비율은 5월에 29.4%를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후(2006년 1월) 1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 이를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5월에 기록된 서울 전체 매매거래 1만 5,470건 중 4,547건에서 매수인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같은 달 서울의 인구는 3,353명 순유출되었으며(통계청, 2023), 올해 5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7천 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보유기간)** 3년 이하 보유자의 매도 비율은 MoM 6.8%p 감소한 27.1%로 7개월 만에 30% 미만으로 감소
 - 6월 소유권 이전 신청 건 중 보유기간이 집계된 4만 5,121건 중에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소유권 이전 신청 건은 1만 2,243건(27.1%)을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감소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서울 월간 주택거래량(좌, 건) 및 외지인 구매 비율(우, %)



보유기간 별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분포(%)



※ 주1 : '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로(동 기준; 경기도, 2020),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주2 :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법원 등기정보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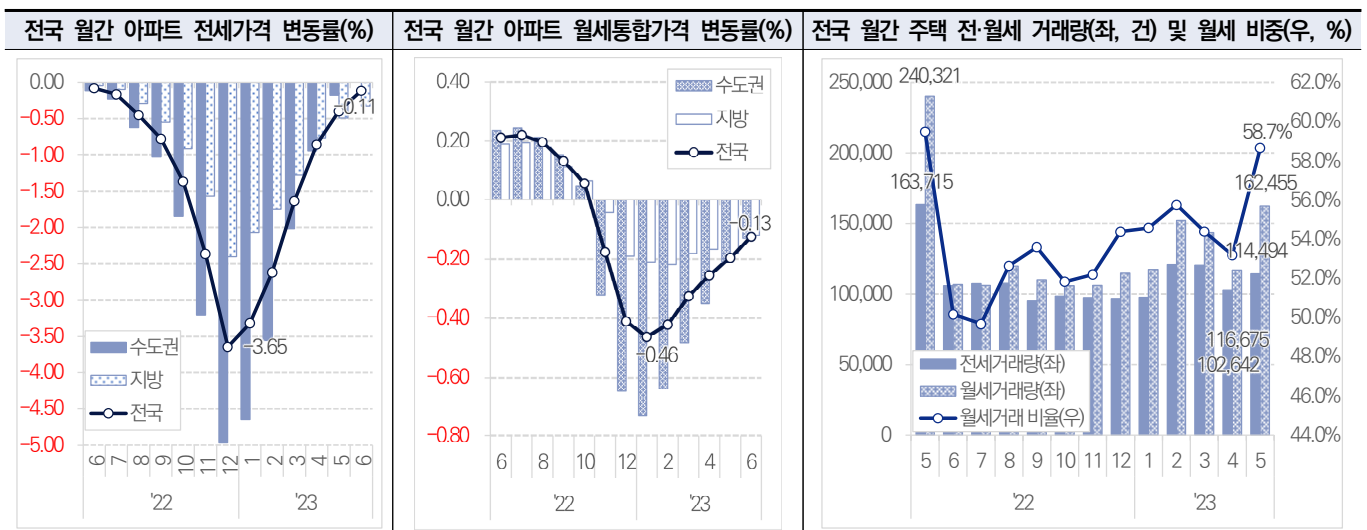
1) 본 고에서 '외지인'이란 관할 시·도 외 지역 거주민을 의미함.

임대차시장

- 6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하락했는데, 그 중 수도권 가격 지수는 0% 수준의 소폭 상승해 1년 6개월 만에 상승 기록
- 5월 임차거래 중 월세 비중은 58.7%로 나타나 지난 1년래 가장 많은 수준(전년 5월은 거래신고 의무화 이슈로 분석에서 제외)

- ◎ **(전세)** 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 기록한 지 1년 반 만에 0.00%대 소폭 상승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82.559를 기록했으나 6월 들어 82.562를 기록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소폭 상승을 기록
 - 이는 수도권 전세가 하락이 시작된 전년 1월(MoM 0.04% 하락)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
 - 다만 지방 전세가격 하락폭이 월간 0.32%에 달해 전국 평균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월세)** 수도권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²⁾은 전세와는 달리 6월 들어서도 0.13% 수준의 하락 지속해
 - 다만 서울 지역 월세는 0.02%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서초·강남·송파·강동이 속해있는 동남권이 MoM 0.19%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 전국에서 6월 월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경기 광명으로, 전월 대비 0.54% 상승해 성남(0.47%) 과 함께 수도권 월세가 낙폭을 줄이는데 역할을 수행
 - 5월 임차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8.7%로 지난 5월 59.5%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임. 다만 지난 5월은 임대차 거래신고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변수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 '월세통합가격(지수)'이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인허가 연간 누적(1월~5월) 감소 폭, 전월보다 커져
- 반면 연간 누적(1월~5월) 아파트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지방은 전년 대비 4.6% 감소

◎ (주택) 전국 주택 인허가, 전년 누적 대비 24.6% 감소한 15.7만 호

- 수도권에서 나타난 누적 인허가 감소폭은 다소 개선됐으나(23.7%^{5월} → 17.3%^{6월}), 지방광역시와(8.9%^{5월} → 17.8%^{6월}) 8개도(29.9%^{5월} → 33.7%^{6월})에서 전년 누적 대비 감소폭이 큰 상황

◎ (APT) 지방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누적 대비 감소한 반면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누적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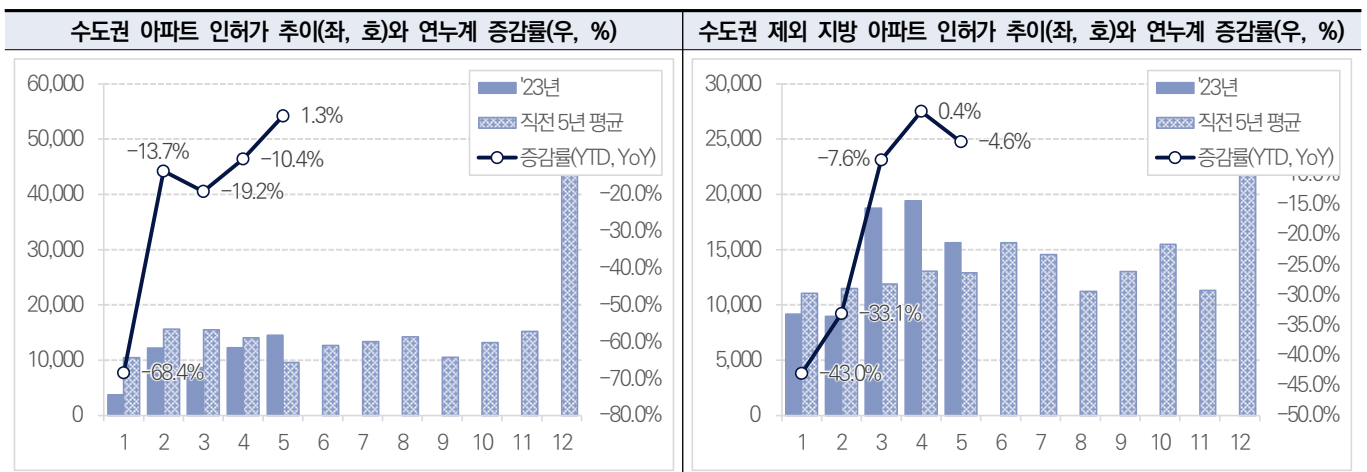
- 이러한 추세를 수도권으로의 사업 집중 경향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됨.

주택 인허가 현황(YTD)

인허가 현황 (호, %)	지역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2022년 1~5월	209,058	73,271	43,395	92,392	11,745	6,008	3,504	2,233	197,313	67,263	39,891	90,159
2023년 1~5월	157,534	60,581	35,665	61,288	3,918	1,481	1,855	582	153,616	59,100	33,810	60,706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24.6%	-17.3%	-17.8%	-33.7%	-66.6%	-75.3%	-47.1%	-73.9%	-22.1%	-12.1%	-15.2%	-32.7%

※ 주 : 5월 인허가 자료 조정으로 인해 전월 대비 감소가 나타남. /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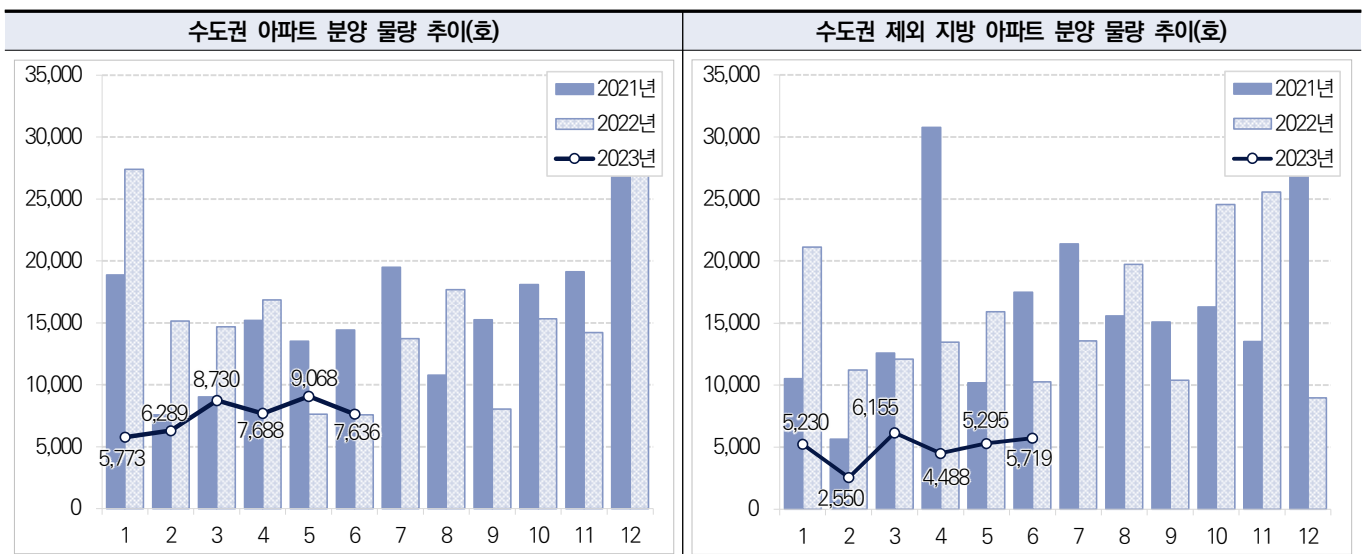
공급

2_분양

- 6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전월 대비 15.8% 감소했으며 연 누적 기준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49.4% 감소)으로 나타나
- 지방에서는 2개월 연속 분양 물량이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유지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 **(수도권)** 6월 수도권 분양은 7,636호로 집계돼 YoY 0.8% 증가했지만 MoM 15.8% 감소
 - 6월 들어 서울(1,184호)과 인천(856호)의 분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양 물량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분양 물량이 감소(8,547^{5월} → 5,596^{6월})함에 따라 전월 대비 감소
 - 전년 YTD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올해 6월까지의 분양 물량이 49.4% 더 적은데, 1월 YoY 감소율이 78.9%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감소폭이 줄어들.
- **(지방)**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증가폭은 줄었지만(18.0^{5월} → 8.0%^{6월}), 2달 연속 증가세 유지
 - 지난해 같은 달까지 누적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올해 6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이 6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또한 하반기 지방 분양 시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가세가 유지되기 힘들 듯
- **(분양계획)** 7월 분양 계획은 총 1.3만 호로 예상돼 6월 당초 계획 물량인 1.2만 호와 유사한 수준
- **(입주계획)** 향후 6개월(2023년 7월~1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3.7만 호로 집계되었으며, 입주 예정월이 미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업장은 역세권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약 3.8천 호임.(한국부동산원, 2023)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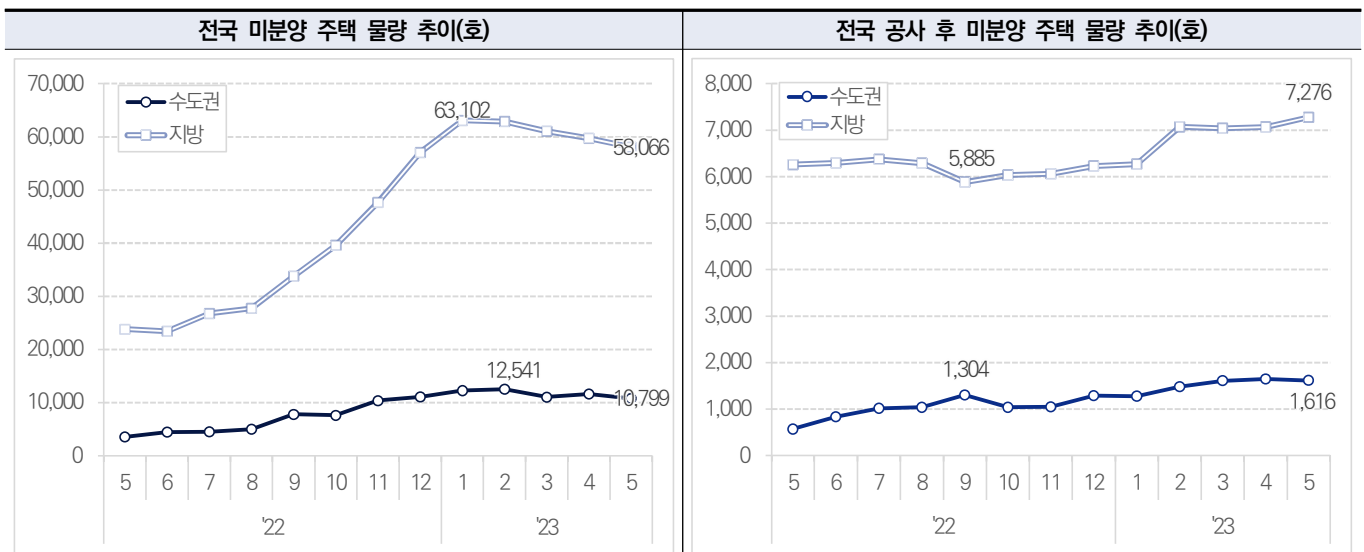
공급

3_미분양

-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미분양 물량은 소폭 감소세 이어져(MoM 3.5% 감소)
- 미분양 물량은 감소했지만, 공사 후 미분양은 여전히 증가세... 과거 사례 살펴보면 증가세 이어질 수 있어

- ◎ **(미분양)** 5월 들어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MoM 7.0%와 2.8% 감소해 전국적으로 MoM 3.5% 감소
 -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8,865호로 집계돼 7만 호를 넘어선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 기록
 - 과거 통계에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미분양 재고가 남아 있었던 시기를 찾아보면 2013년 말경으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기 직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다만 현재 감소세는 우위 입지 분양 물량의 선별적 출회에 따른 미분양 물량의 감소일 가능성이 농후
- ◎ **(공사 후 미분양)** 5월 수도권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8,892호로 집계돼 MoM 2.0% 증가
 - 이는 공사 후 미분양 물량의 이전 저점인 지난해 5월의 6,830호에 비하면 약 30.2% 증가한 것임.
 - 다만 지방에서 MoM 3% 증가한 데 비해 수도권에서는 2% 가량 감소(1,649호^{5월} → 1,616호^{6월})한 것으로 나타나
 - 올해 3월까지 지속된 미분양 증가 추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2021년 10월이었고 공사 후 미분양 증가가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당분간은 공사 후 미분양의 증가세가 지속될 수도 있음.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매매와 전세수급동향지수 각각 6월 들어 상승폭 다소 둔화
-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 100 회복... 가격 하락 전망과 가격 상승 전망이 동등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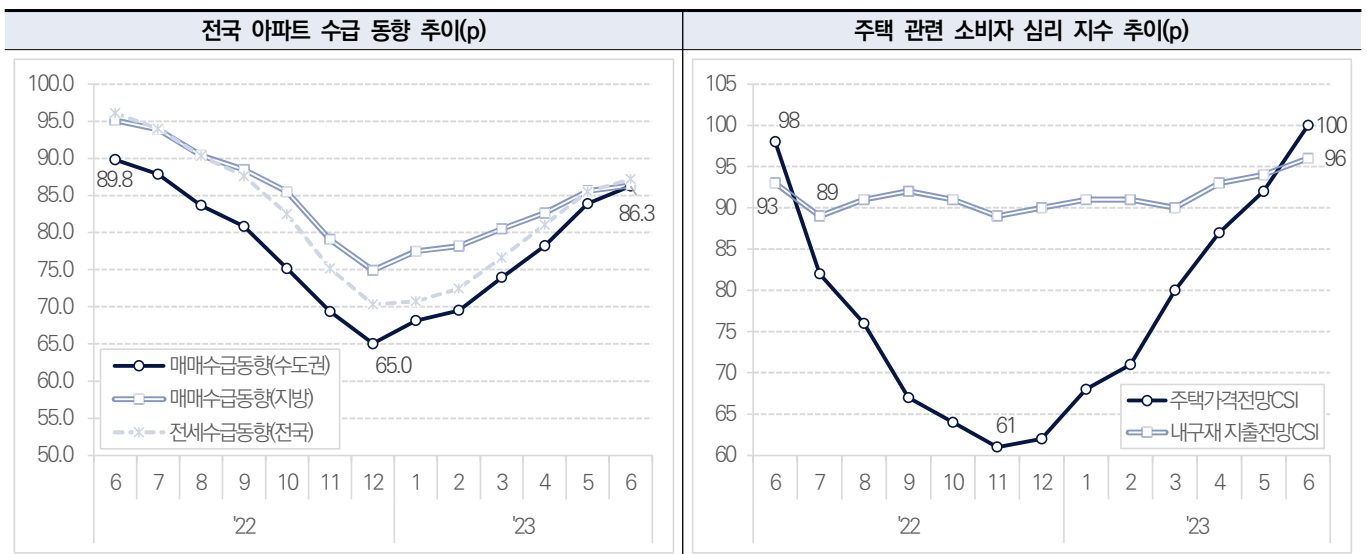
◎ (수급동향) 전국 매매수급동향지수는 86.3으로 조사돼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

- 매매수급동향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이후 5월까지 매매수급동향지수의 회복은 비교적 급격히 이루어졌지만, 6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노정
- 지역별 매매수급동향지수의 격차는 0.1p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전세수급동향지수도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수도권 전세가 소폭 상승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소비자심리)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집계돼 13개월여만에 100선을 회복

- 지난해 5월 111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들어 98로 하락한 이후 13개월 동안 100미만을 유지했지만 6월 들어 100을 회복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라는 의미는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자와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자의 기세가 동등하다는 의미로, 지수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반등이 관측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가격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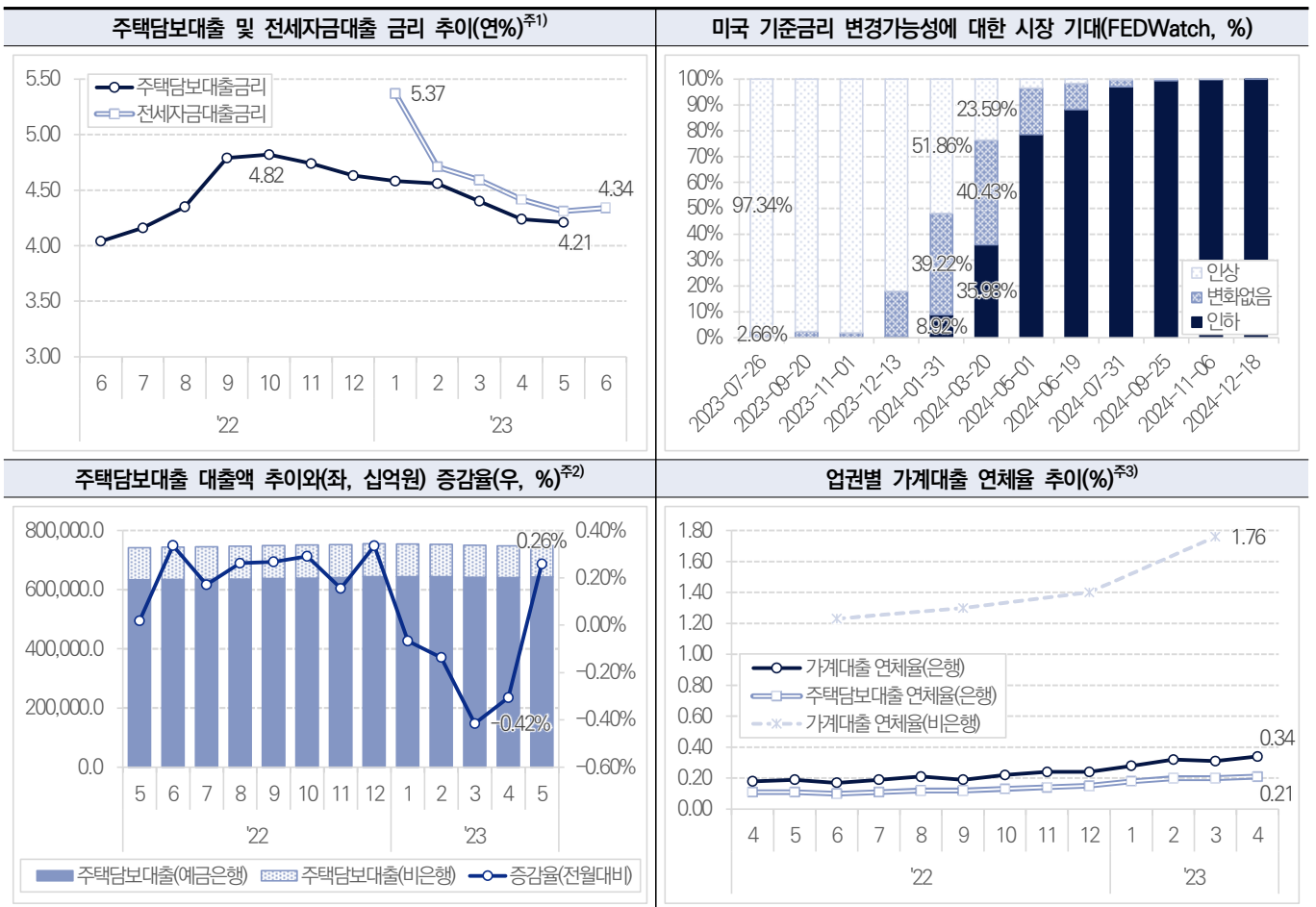
금융

◎ (금리) 6월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은 4.34%로 조사돼 전월 대비 0.03%p 상승

- 지난 1월 5.37%에 달했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이후 5개월 연속 빠르게 하락하며 4.31%까지 1%p 넘게 떨어졌지만 6월 들어 다시금 상승하며 전세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 상품마다 상이하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 산정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엿보임.

◎ (대출액 및 연체율 추이) 가계 대출액 감소세 4달 만에 종료하며 5월 들어 0.26% 증가한 한편 지난 1분기 집계된 비은행권 연체율이 1.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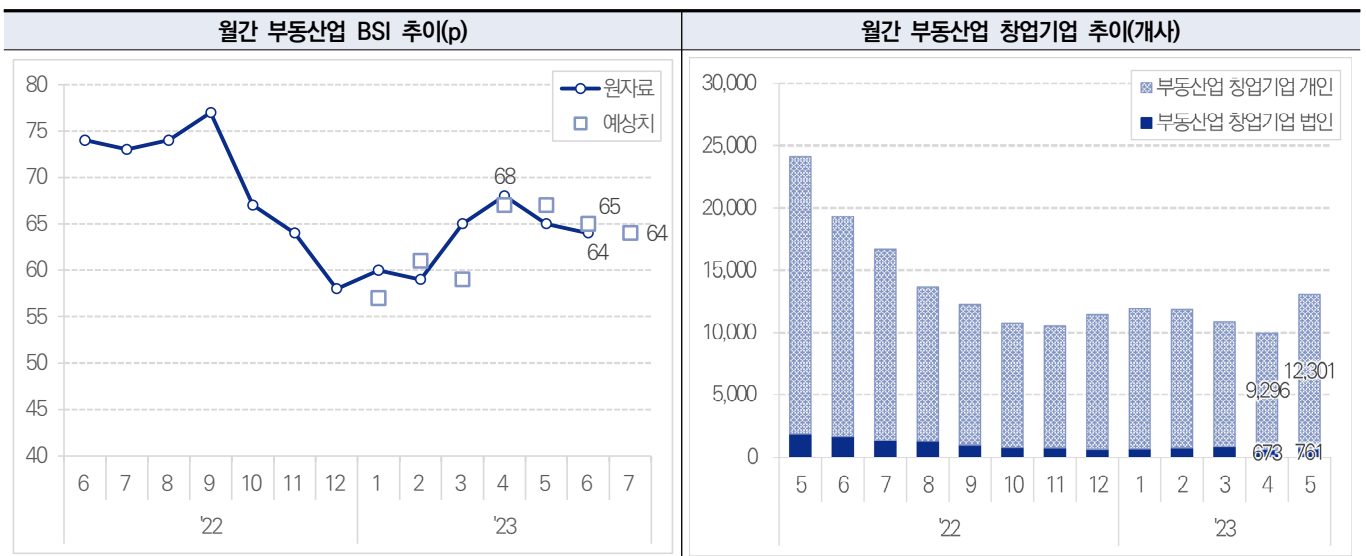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HF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중위값(짝수인 경우 중위수 두 값의 평균)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³⁾

- ◎ (부동산업 BSI) 2023년 6월 부동산업의 업황 기준 BSI는 64p로 집계돼 예상치인 65p에 못 미치는 결과를 시현했지만 하락폭이 축소
 - 일부 특정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통계가 나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그 영향이 BSI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상반기 동안 이어졌던 가격 하락에 뒤이어 나타났던 상승장의 사례를 돌아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9월이었고 BSI가 저점을 기록한 것은 2019년 8월로 동행 지표에 가까운 면모를 보임.
 - 7월 BSI 예상치가 금월과 동일한 수준인 64로 집계되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가격 하락이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으나 원자료 수집 결과를 추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5월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약 1.3만 개로 집계돼 2022년 8월 이후 가장 많아
 - 지난 4월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9,969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월간 통계가 작성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자 법인 창업기업이 1만 개 이하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임.
 - 4월 대비 5월 부동산업 창업기업의 수는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13.1%, 법인은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부

3)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로 정의함.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항 목	변화율 · 변화량					최신 집계치 ^{주1)}	최근 5년 변화 추이		
	직전 5년		직전 3년		YoY			MoM	
	고점	고점대비	고점	고점대비	-			-	
거시경제	경기선행지수 (p)	109.7	0.0%	109.7	0.0%	1.2%	0.3%	109.7	
		94.3	16.3%	99.0	10.8%				
	소비자물가지수 (p)	111.1	0.0%	111.1	0.0%	2.7%	0.0%	111.1	
		98.6	12.7%	99.6	11.5%				
가격지수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483.3	-7.7%	483.3	-7.7%	-7.6%	-0.1%	445.5	
		285.5	56.2%	366.5	21.7%				
	지방 아파트 매매 (p)	333.9	-5.7%	333.9	-5.7%	-5.5%	-0.2%	314.3	
		239.7	31.4%	259.4	21.4%				
거래량	수도권 주택 매매 (건)	75,725	-67.3%	75,725	-67.3%	-6.0%	18.8%	24,739	
		10,299	140.2%	10,299	140.2%				
	지방 주택 매매 (건)	77,078	-60.5%	77,078	-60.5%	-17.5%	13.9%	30,437	
		15,462	96.9%	15,462	96.9%				
공급	전국 아파트 분양 (호)	64,264	-79.2%	64,264	-79.2%	-25.2%	-7.0%	13,355	
		7,020	90.2%	8,839	51.1%				
	전국 아파트 미분양 (호)	75,438	-8.7%	75,438	-8.7%	151.6%	-3.5%	68,865	
		13,842	397.5%	13,842	397.5%				
금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	4.82	-0.61%p	4.82	-0.61%p	0.31%p	-0.03%p	4.21	
		2.39	1.82%p	2.39	1.82%p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754,831.0	0.7%	754,831.0	0.7%	1.2%	0.3%	749,816.8	
		585,506.1	-21.9%	648,637.6	-13.5%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용 어	내 용	비 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CSI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MoM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YoY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YTD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